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과 오류 양상

사와다 히로유키*

1. 서론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교육 목표로 삼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형태에는 음성언어인 입말뿐만 아니라 문자언어인 글말도 포함된다. 이전과는 달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단순한 전사활동을 넘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 기능 습득 단계에서의 쓰기와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쓰기를 목표로 삼게 되었다. 쓰기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1)]

---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 백봉자(1987), 우인혜(1996), 손연자(1996), 정현경(1999), 김정숙(1999), 김정애(2000), 김민성(2000), 이미혜(2000), 이수민(2001), 여순민(2002), 강승혜(2002)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었다.

을 보면, 쓰기 교육이 결과중심 접근법을 벗어나 학습자가 텍스트 쓰기를 산출하고 고찰하여 토론하고 재작업 하는 과정중심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쓰기를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사에 의한 피드백[2]이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되지 못 한다. 교사는 피드백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평가 기준이 되는 평가 항목들이 필요하다. 김유정 외(1998)에서는 쓰기 평가범주로 9가지 평가 항목들을 제시하였는데[3], 제시된 평가 범주의 항목에 대해 강승혜(2002: 187)는 '전략적 능력의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결과 중심적 평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과정 중심적인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가의 기준은 결과 중심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을 성취도 측면에서 형성평가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쓰기 과정 평가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텍스트 전체를 보고,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지도해주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습자가 응집성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이나 텍스트 구조의 표지를 적절히

---

2) 한국어 쓰기교육에서 피드백에 관해서는 정현경(1999), 김정애(2000), 이수민(2002) 등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중 정현경(1999)과 이수민(2002)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활동에서 실제로 각 활동 단계마다 피드백을 시도한 결과 학습자들의 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3) 김유정 외(1998: 55-58)에서 제시된 9가지 평가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맞춤법, ②어휘력, ③문법력, ④형식적 결합력(cohesion), ⑤내용적 긴밀성(coherence), ⑥사회언어적 기능 수행력, ⑦정확성, ⑧유창성, ⑨전략적 능력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언어권과 학습단계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구성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4급과 6급의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4] 접속 부사의 사

4)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쓰기 능력은 초급과 고급에서 전혀 다르다. 낮은 단계에서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맞춰 글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한편, 중급단계부터는 점점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 되며, 고급단계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구조에 맞추어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학습단계가 올라갈수록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급과 6급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내용을 제시하겠다. 지면상 2급, 4급, 6급에 한정하겠다.

2급	자주 쓰이는 문장의 종결형과 연결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평이한 대화나 생활문을 쓸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실용문을 쓸 수 있다.	
	소재	· 자신, 일상생활, 물건, 장소, 방향, 시간, 음식, 취미, 교통, 운동, 가족, 날씨, 직업, 쇼핑, 집, 약속, 편지, 옷, 전화, 우체국, 은행, 여행, 계획, 감정
	기능	· 간단한 문장 구성하기 · 간단한 대화 구성하기 · 간단한 실용문과 설명문 쓰기 · 묻고 대답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허가하기, 추측해 표현하기, 메모하기
	텍스트 유형	· 문장, 문장의 연쇄, 매우 간단한 문단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메모, 편지, 서식, 안내문, 광고문
4급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 소재의 범위가 넓어지며, 보다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글쓰기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소재	· 가족, 직업, 근황, 학교생활, 직장 생활, 업무, 사건, 사고, 모양, 외모, 복장, 성격, 사회, 문화, 경제, 언어, 유행, 교육, 인간
	기능	· 친숙한 추상적 소재로 대화 구성하거나 글쓰기 · 간단한 논리적 글쓰기 · 하나의 의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 설명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후회 표현하기, 가정 표현하기, 우려 표현하기, 설명문 쓰기, 안내문 만들기, 기사 작성하기
	텍스트 유형	· 문장의 연쇄, 문단 · 대화문, 서술문, 실용문, 설명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사, 감상문, 서평, 수필

용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속 부사는 선행문과 후행문을 연결하는 것이며, 텍스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structure)[5]로서 담화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접속 부사 사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대부분의 오류 분석 작업에서는 어절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영역(domain)[6]을 무시해서 표면적으로만 관찰했기 때문에 텍스트 전체 내용과 앞뒤 문장까지 고려해야 포착되는 오류 유형은 정확하게 집어내기 힘들었다.(석주연 · 안경화, 2003: 208-209) 본고에서 시도되는 접속 부사의 오류는 앞뒤 문장이나 텍스트 전체 내용이 영역으로 상정되었을

6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대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업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기능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간혹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의미 파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소재	· 업무, 사회 현상, 문화 비평, 가치관, 의학 기술, 정치 구조, 경제 현상, 제도, 관념
	기능	· 격식에 맞는 문체와 어휘를 사용하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글쓰기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 선택해 사용하기 · 한국어 담화 구조에 맞춰 글쓰기 · 의견 주장하기, 비판하기, 가설 뒷받침하기, 요약하기, 서류/ 보고서 작성하기, 번역하기
	텍스트 유형	· 문장의 연쇄, 문단 · 대화문, 서술문, 설명문, 논설문, 편지, 안내문, 광고문, 기사, 서평, 수필, 소설, 시

5) 결과물인 텍스트는 '내용 요소들을 표현한 언어 요소'와 '내용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언어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후자를 텍스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structure)라고 한다(김봉순 2002: 73-74). 표지에는 어휘 또는 구로서 표지 기능을 하는 '개념어' 표지와 문장 부사, 부사구, 연결어미 등과 같은 연결성의 기능을 하는 '연결어'표지의 두 가지부류가 있는데 접속부사는 후자에 속한다.

6) Lennon(1991)에서는 오류를 다룰 때 언어의 계층적 구조를 고려하는 시각이필요함을 지적하며, 영역(domain)과 범위(extent)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류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주장했다. Lennon(1991: 189)에 의하면 영역은 '해당 오류가 표면화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맥상의 언어학적 단위'이며, 범위는 '오류 문장 교정을 위해 삭제, 대체, 첨가, 재배열 대상이 되어야 할 문맥상의 언어학적 단위'이다.

때 비로소 나타나는 오류이며, 텍스트 전체의 의미나 텍스트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영역을 텍스트 단위로 설정하여 이루어지는 오류 분석은 과제 중심 쓰기 활동과 상통한다[7]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석주연 · 안경화(2003: 190-191)에서 지적하였듯이 오류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표면 전략적 유형 분류나 언어학적 유형 분류뿐만 아니라 Corder (1974: 166)식의 명백한 오류(overt errors)와 숨은 오류(covert errors), Burt & Kiparsky(1974)가 제안한 전국적 오류(global errors)나 국소적 오류(local errors) 등은 오류의 새로운 국면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본고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접속 부사의 오류는 학습자의 숨은 오류를 집어내는 것이며, 이러한 오류는 텍스트 수준까지 영역을 확대해야만 파악 가능한 오류들이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접속 부사의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강화진(2000)에서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총 30명 학습자들의 작문을 분

---

7) 이미혜(2000: 145)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초안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 지엽적 오류나 문법적인 오류는 교정하지 않고 중요한 전체적인 오류만을 다룬다.
- 학습자의 문장을 다시 쓰지 않는다.
- 주제를 전개하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 주제와 관계가 먼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
- 부적절하거나 어색한 단어와 표현을 지적한다.

본고에서 시도할 접속 부사의 오류는 전체적인 오류에 속하는 것이며, 글 전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석 자료로 삼아 오류 유형을 음성적 오류, 음운적 오류, 철자 오류, 어휘적 오류, 통사적 오류, 스타일 오류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류 유형별로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 전이'와 '언어내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오류를 보면 모두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오류들이었다.

김청자(2000)에서는 고급 학습자 46명을 일본어권, 교포권, 기타 언어권으로 나누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크게 철자 영역, 조사 영역, 어휘 영역, 통사 영역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례를 제시하였다. 일부 조사에 관해서 앞뒤 문장을 고려한 오류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오류들이 한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라 기존의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볼 수 없고, 또한 각 언어권 학습자가 적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민자(2001)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 학습자들의 작문 139편 중에서 2,451개의 오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조사, 어미, 시제, 부정법, 대우법, 어순, 어휘 등 13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언어 내적 전이에 의한 오류가 73.8%, 언어간 전이에 의한 오류가 26.2%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오류들 역시 문장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싯티니 탐마차이(2001)에서는 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작문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크게 어휘, 조사, 어미, 어순으로 분류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학습 대상어 인지 오류'와 '모국어 간섭 오류'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명백한 오류(overt errors)들이며, 문장 단위를 넘은 오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2003)에서는 총 37개국 26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76,872 어절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자료 중에 일부 구어 자료가 섞여 있는데, 문어 상황인지 구어 상황인지에 따라 오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주별 오류 분류에 있어서 텍스트 맥락의 오류가 분석 틀에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괵셀 튀르쾨쥐(2004)는 터키인 학습자의 쓰기 자료 총 150개에서 오류가 있는 문장들을 모아 오류를 문법 차원, 어휘 차원, 텍스트 차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터키어의 문장과 대조 분석하면서 각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오류 분석을 텍스트 차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위의 3가지 분류 방법으로는 텍스트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휘나 문법 오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텍스트 차원에서의 오류가 지칭어와 높임법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한국어교육에서 작문 자료를 통한 오류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영역을 문장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쉽게 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오류(overt errors)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특히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역을 텍스트 단위까지 넓혀서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 숨은 오류(covert errors)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사의 오류가 초급에서는 명사와 용언의 호응관계만 보아도 바로 오류라고 확인되는 데 비해 고급에서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거나, 또는 텍스트 전체를 보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오류가 나타난다. 특히 고급단계에서는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되는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텍스트 영역의 오류가 언어권마다 어떤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 구조의 표지인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작문 자료는 Y대학교의 일본어권 학습자 4급 100명과 6급 100명이 쓴 글들(4급 총 11,804 어절, 6급 총 19,095 어절)이며, 작문의 종류는 4급, 6급 모두 크게 경수필과 논술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오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접속 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접속 부사로 볼 것인지 우선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김선영(2003: 2)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접속 부사 목록을 정리한 결과 아래와 같이 38개의 접속부사가 선정되었다.

> 게다가, 곧, 그래도, 그래서, 그래야,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고로, 그런데, 그런즉, 그렇지만, 그리고, 그리하여, 다만, 단, 더구나, 더욱이, 따라서, 또, 또는, 또한, 및, 왜냐하면, 이러므로, 이리하여, 즉, 하기는, 하기야, 하나, 하물며, 하지만, 한데, 한편, 혹은

접속 부사가 접속 가능한 대상은 구와 문장인데, 접속 부사마다 접속 대상에 차이를 보인다. 즉, 접속 부사 중에는 문장과 구 접속이 모두 가능한 접속 부사가 있는가 하면, 구만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가 있다. 위의 접속 부사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및'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영역의 오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만을 접속하는 접속 부사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그렇다면'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을 포함하기로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접속 부사로 선정된 것은 위의 항목에서 '및'을 제외하고 '그렇다면'을 포함한 38가지가 된다.

오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류의 정의와 확인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오류를 비문법적인 일탈로 보고 문법성(grammaticalness)이 낮은 것을 규범적인 오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본고와 같이 교육적 목적으로 오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문법성과 아울러 용인성(acceptability)도 고려해야 한다. 즉, 문법성은 낮지만 용인성이 높은 경우는 덜 심각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오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법성과 용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적절성(appropriateness)일 것이다. Corder(1981)는 문법적이라도 상황이나 문맥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면 오류로 간주하였는데, 이 정의는 본고처럼 텍스트 영역의 오류를 분석하는 경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류의 정의와 확인에 있어서 문법성과 용인성, 그리고 적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접속 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접속 부사의 오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접속 부사가 틀렸는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 명제[8]가 틀렸는지는 학습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판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모든 학습자에게 인터뷰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전체 내용을 고려하여 접속 부사의 앞뒤 내용 명제를 추측하기로 한다. 즉,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의 내용 명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속부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만약 어휘 오류, 문법 오류로 인해 내용 명제가 불확실할 때는 텍스트 전체 내용으로부터 내용 명제를 추측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맥상 적절한지 어떨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한국어 모어화자라면 그 접속 부사를 사용할 가능성

8) 내용 명제란 구체적으로 상태 · 과정 · 행동 · 사건 등과 시간 · 장소 · 기타 상황적 요소들이 결합된 사상(事象)을 표상하는 명제이다.(김봉순 2002: 77)

이 있는지에 따라 오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오류에 대한 관점은 Lennon(1991)의 정의[9]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오류 분석 연구에서는 생략 오류[10]도 측정된다. 예컨대, 조사의 오류 빈도를 측정할 때는 학습자가 사용한 조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조사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략된 경우도 대상 조사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부족, 또는 회피로서 오류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접속부사 경우에는 접속부사가 있으면 더 자연스럽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사용한 접속부사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접속부사와 잘못 사용한 경우와 접속부사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 사용된 경우 즉, 대치 오류[11]와 첨가 오류만을 고려할 것이다.

오류의 정의와 확인에 관련하여 오류를 누가 평가하느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오류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평가자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Hughes & Lascaretou(1982)에 의하면, 비모어 화자 평가자는 모어 화자 평가자보다 어형과 가능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어휘와 전국적 오류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 평가자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한다. Burt(1975) 역시 모어 화자 평가자는 어휘의 오

---

9) Lennon(1991:182)은 다음과 같이 오류를 정의하였다. : a linguistic form or combination of forms which, in the same context and under similar conditions of production, would, in all likehood, not be produced by the speakers' native speaker counterparts.

10) 연구자에 따라서는 '누락 오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어순 오류' 등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잘못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은데도 '누락 오류'라고 하면 잘못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다른 오류들과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 오류'를 사용하기로 한다.

11) 대치 오류를 기술하는 데, 수정 전 오류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법과 수정 후 오류 항목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접속 부사 경우에는 예컨대 '그러나'나 '그렇지만'이 적합한 부분에서 '그래도'를 사용한 경우, 수정 후의 표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으로는 기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류를 문법적 오류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국적 오류가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Rod Ellis, 1994: 47)

위의 이론에 따르면, 본 연구자는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의 오류보다 문법의 오류, 전국적 오류보다 국소적 오류를 더 심각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오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본연구자가 오류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았을 때 용인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오류로 간주하였다.

오류의 원인에 관해서는 '조사', '어미', '어휘'에 경우라면 학습자의 모어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모어가 간섭을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접속 부사 경우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1대 1로 대응하지 않고 1대 다(多)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간 오류는 고려하지 않고 언어 내 오류만 고려하였다.

4. 접속부사의 사용과 오류 양상

4.1. 접속부사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

접속부사의 오류 빈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접속부사를 작문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본 연구 자료에서 접속부사가 사용된 총 빈도를 알아보겠다. 오류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항목의 절대 빈도(absolute frequency)를 측정하여 어떤 항목의 오류 빈도가 높으면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으면 오류 빈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고의 시도처럼 사용 빈도를 알아봄으로써 상대 빈도(relative frequency)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 자료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한 접속부사를 측정한 결과 사용 빈도는 4급에서 266, 6급에서 26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오류 빈도를 보면 4급에서 72, 6급에서 103로 6급이 4급보다 사용빈도가 낮은데도 오류 빈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고급단계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 접속 부사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된 접속 부사의 종류를 보면, 4급에서 총 19 종류, 6급에서 총 21 종류의 접속부사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왜냐하면'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이 아닌데도 거의 완벽하게 사용되었다. '그러자', '다만', '단', '더구나', '즉', '하기는', '한편', '혹은' 등은 사용빈도가 매우 낮고 게다가 다른 접속 부사와의 대치 오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또는', '또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또는'과 '또한'의 대치오류로 나타났다. (1)의 경우, '또는'과 '또한'이 형태상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접속사 간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니 심각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1) 제가 <세만>에 입사하려는 동기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공부함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또한) 외국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외국어의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역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급)

이하에서는 사용 빈도와 오류의 비율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리고'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게다가', '그렇다면', '그러므로', '그렇지만', '또', '하지만' 등은 '또'와 '하지만'을 제외하면 모두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위의 접속 부

사와의 대치오류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위의 접속 부사들과 함께 언급할 것이다.

접속부사의 종류	4급			6급		
	사용빈도	오류빈도 (주된 오류 유형)	오류비율	사용빈도	오류빈도 (주된 오류 유형)	오류비율
게다가	4	0	0%	6	3('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3)	50%
그래도	15	12('그러나'와의 대치 오류 6, 첨가 오류 4)	80%	15	8('그러나'와의 대치 오류 6)	53%
그래서	51	7	14%	35	11	31%
그러나	25	7('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3)	28%	26	11('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8)	42%
그러니까	18	11('그래서'와의 대치 오류 9)	61%	17	17('그러므로'와의 대치 오류 7,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 6)	100%
그러면	3	2('그렇다면'와의 대치 오류 2)	67%	8	8('그렇다면'와의 대치 오류 7)	100%
그러므로	-	-	-	5	4('그래서' 와의 대치 오류2)	80%
그런데	14	8(첨가 오류 4)	57%	14	6('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3)	43%
그렇다면	-	-	-	6	5	83%
그렇지만	7	1	14%	9	3('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2)	33%
그리고	49	8(첨가 오류 4)	16%	55	9(첨가 오류 3)	16%
다만	1	1	100%	1	1	100%
단	-	-	-	1	0	0%
더구나	-	-	-	2	0	0%
또	7	1	14%	20	7('그리고'와의 대치 오류 4)	35%
또는	1	0	0%	2	2('또한'과의 대치 오류2)	100%
또한	7	2	29%	-	-	-
왜냐하면	18	1	6%	9	0	0%
즉	1	0	0%	4	1	25%
하기는	1	1	100%	1	1	100%
하지만	43	9(첨가 오류 8)	21%	25	6('그런데'와의 대치 오류 3)	24%
한편	-	-	-	3	0	0%
혹은	1	1	100%	-	-	-
합계	266	72	27%	264	103	39%

〈표 1 접속부사별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

4.2. 접속부사별 특징

4.2.1. 그래도

'그래도'의 오류 유형은 4급에서 12번의 오류 중에서 (1)과 같이 첨가 오류가 4번 나타났다. (1)의 예문에서는 후행문에 '그렇다고 해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가 필요 없는데도 사용된 것이다. (1)의 경우, '나는 그렇다고 해도'를 생략하면 '그래도'를 살릴 수가 있으며, 앞뒤 관계를 보았을 때, '그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1) 자기 취미나 즐거움을 일로 삼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생활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귀찮고 재미없어 보이게 될 지도 몰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나는 그렇다고 해도 내 즐거움을 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4급)

4급에서 12번의 오류 중에서 4번의 첨가 오류를 제외한 9번의 오류는 모두 대치 오류들이다. 이 중 6번이 '그러나'나 '그렇지만'과의 대치 오류로 나타났다. (2)의 경우, 앞의 내용 명제는 현 단계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도'를 사용하려면 뒤의 내용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든지 '10년 후에는 결혼하고 있을 것이다.'처럼 희망적인 것이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와야 한다. 이와 반대로 (3)처럼 '그래도'가 적합한 자리에서 '하지만'이 사용된 오류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오류는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4급에서는 '그래도'와 '그러나', '그렇지만'과의 대치 오류는 거의 '그러나', '그렇지만'이 적절한 부분에서 '그래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2)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만) 혼자서 있는 것도 적막해요.(4급)

(3) 일이 했을 때도 한국에 많이 온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가는 곳은 경기장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축구와 관계 없는 곳에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빠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월드컵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도 학교의 공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4급)

한편, 6급에서는 8번의 오류 중에서 6번이 '그러나'와의 대치 오류로 나타났으며,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래도'와 '그러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4)의 경우,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실내에서 놀게 하는 이유나 장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실내에서만 놀았을 때의 단점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러나'가 적절하다. '그래도'가 사용될 때는 뒤에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결국, '그래도'는 완전한 대립이 아니라 부분적인 반론을 펼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러나'와 혼동하지 않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옛날처럼 친구들과 노는 넓은 놀이터도 없어지고 대기오염위해 공기도 더러워지고 교통률도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밖같에서 노는 것보다 차라리 집안에서 노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작지 않는 현실이다. **그래도**(→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전자파를 받아가 보면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전자차 때문에 병원에 내야 되는 의료비도 많아질 것이다.(6급)

4.2.2. 그래서

'그래서'는 '그리고'와 함께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서 다른 접속 부사보다 사용 빈도가 높다[12]. 학습자들의 작문에서도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4급에서는 사용 빈도 51에 대해 오류 빈도는 7로 오류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의 오류 유형을 보면, 7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한 번 나머지 6번은 대치 오류였으며, 특정 접속 부사와의 대치 오류는 볼 수 없었다. '그래서'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문장은 얼핏 볼 때는 '그래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텍스트 전체를 보았을 때는 (1), (2)처럼 대용적인 표현으로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에서는 앞뒤의 내용이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그래서'가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2)에서 학습자는 여행을 가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친구가 생겼다는 자신의 경험을 앞에서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도 대용어로 '이처럼'을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4급 학습자들은 '그래서'가 사용범위가 넓어서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오류는 6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4급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소화하지 못해서 아는 표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6급에서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오류는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저절로 해결될 심각하지 않은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지만 한국말하고 일본말은 문법도 똑같고 한글도 배우기 쉬어서

12) 김미선(2001: 7)의 연구에서는 구어체 텍스트에서 22.82%, 이희정(2003: 24)의 연구에서는 일상대화에서 20% '그래서'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가면 우리 고향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한국하고 일본이 신길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하고 생각합니다.(4급)

(2) 물런 그 나라의 말을 알으면 더 대화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그 친구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처럼) 여행을 하면 말이 잘 못하지만 여러나라 사람도 만날수 있다고 생각해요.(4급)

한편, 6급에서는 사용 빈도 35에 대해 오류 빈도가 11로 31%가 오류로 나타났다. 오류의 유형에는 두드러진 특징은 볼 수 없으나 '그러니까'에서 '그러므로'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에서도 '그러므로'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난 것은 오류 빈도가 3으로 낮은 데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만한 결과를 이끄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논리성을 기술하는 상황에서는 (3)과 (4)처럼 '그러므로'가 적합하다. '그러므로'는 선행문이 후행문에 대한 전제가 되고, 후행문은 그러한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이끌어낸 결론이 된다. 김미선(2001: 96)에 의하면, '그러므로'는 구어체 텍스트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간혹 담화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문자로 된 원고를 음성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므로'를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4급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6급에서는 5번 사용되었지만, 이 중 4번이 오류로 나타났다. 이는 (5)처럼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단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그러므로'를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종류의 맞는 문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 아빠 엄마는 "시험에서 몇점을 받아라"나 "이런 공부를 해봐라" 같은 말을 하나도 안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더니 나는 부담을 느낄 게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도 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하니까 나는 뭐를 하면 될지 고민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이한테 어느 정도 보여줄 것도 중용한 것이다.(4급)

(4) 그런 사람한테 신뢰를 받고 또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가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복은 남의에게도 장점이 있고 입는 본인들에게도 장점 있어서 우리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제복은 필요하다고 봅니다.(6급)

(5) 한국은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양국 사이에 뭐가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6급)

4.2.3. 그러나

4급에서는 '그러나'의 사용 빈도가 25에 대해 오류 비도는 7로 나타났는데, 7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와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2번, '그리고', '그러다', '그래도'와의 대치 오류가 각각 한 번으로 나타났으며, 두드러진 특징은 볼 수 없다. 6급에서는 11번의 오류 중에서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8번이나 나타났으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들이 '그러나'와 '그런데'의 차이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의 경우, '그러나' 앞에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만약, '그러나' 뒤에 영재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나'가 적합하지만, 후속 부분에는 교육의 전반적인 현상이 계속되므로 '전환'의

기능을 가진 '그런데'가 적합하다.

(1) 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있다고 볼때 영재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기대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데) 최근의 교육 실태는 부모들 위주로 무조건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게 실체 상황이다.(6급)

위와 같은 오류들은 '그러나'와 거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과 '하지만'에서도 볼 수 있다. 6급에서 '그렇지만'은 3번 중 2번, '하지만'은 6번 중 3번 '그런데'와의 대치 오류가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그런데'가 적합한 상황에서도 선행문과 후행문이 조금이라도 역접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앞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과외를 받아야 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전환'의 기능을 가진 '그런데'가 적합하다. (3) 역시 '그렇지만' 뒤에 앞내용과 관련시키면서도 화제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그런데'가 적합한 것이다.

(2) 지금 한국에서는 사교육비로서 사용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이나 TV뉴스에서는 그냥 그 금액만 골라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국민이 쓰는 사육비를 합치면 한국 국가 예산에 육박할 정도이므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금액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외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6급)

(3) 제가 상을 차렸을 때 이야기인데 반찬을 다 놓은 후 물을 한식구씩 준비 했더니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늦었다고 혼났습니다. 그 때 이해가 안가서 화가 났습니다. 왜

물을 준비한 것이 그렇게 야단이냐고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계속 시집식구들과 살다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6급)

'하지만' 경우 4급에서 사용 빈도가 43으로 매우 높고 나타났는데, 9번의 오류 중에서 8번이 첨가 오류였다. 4급에서 나타난 첨가 오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4)와 같이 후행문에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가 있는데도 '하지만'을 사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5)에서 '그러고 보니'처럼 관용적인 표현이 문두에 나온 경우에 '그러고 보니' 자체가 '전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접속 부사가 필요 없는데도 사용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6급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중급단계에서 접속 부사, 연결 어미 등의 기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직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급에서는 '하지만' 자체의 사용이 4급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문어에서는 '하지만'보다 '그러나'나 '그렇지만'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한 학습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2급 3급도 어려웠지만 4급도 역시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 날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미 아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재미있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기 때문이다.(4급)

(5) 사실은 한약은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 그러고 보니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4급)

4.2.4. 그러니까

4급에서 '그러니까'의 사용 빈도 18에 대해 오류 빈도가 11로, 6급에서

는 사용 빈도 17에 대해 모두 오류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4급에서 11번의 오류 중에서 9번, 6급 경우에도 17번의 오류 중에서 6번이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 학습자들이 고급단계에서도 '그래서'와 '그러니까'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에는 '원인'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문어에서는 '원인'으로 사용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 (2)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가 사용되면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희정(2003: 61)에 의하면 구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그러니까'를 '원인'의 기능으로 13%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해 학습자 경우에는 30%나 사용하였다고 한다. 결국, 학습자는 구어에서도 '그러니까'를 '원인'의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고 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고급단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그러나 지금 하숙음식은 건강에 별로 안 좋다. 항상 매운 음식이 나오고 야채요리가 적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과일등을 사 먹고 있다.(4급)

(2) 나는 어려서부터 아무 고생없이 살아왔다. 남이 제일 힘들어하는 입학시험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친구도 있고 가정상태도 좋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원하는대로 잘되고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는 정도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다.(6급)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니까'는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매우 많은 접속 부사라고 할 수 있다.

이희정(2003: 24)의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는 구어에서 전체 담화표지 중에서 모어화자 23%, 학습자 17%로 두 번째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김미선(2001: 7)에 의하면, 문어에서는 접속 부사 총 16,672회 사용 중에서 빈도 471, 비율이 2.83%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 의한 공식적인 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구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에는 선행 발화가 후행 발화의 이유나 원인으로 기능하는 경우에 두 발화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인 것과, 후행 발화가 부연 설명을 함을 보여주는 담화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13] '원인'의 의미보다는 후행 발화가 선행 발화에 대한 '부연 설명'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김미선 1996: 125) 4급에서 '그러니까'가 총 18번 중 7번 바르게 사용된 글을 보면 모두 하라체로 '부연 설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도 혼자서 있는 것도 적막해요. **그러니까** 일에 성공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돼고 일이 별로이면 결혼하고 있을 것 같아요.(4급)

(3)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는 자신이 언급한 이야기를 다시 자세하게 전달하려는 문장에 쓰이며, 선행 발화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거나 이전 화제로 전환하는 문장에 사용되거나 화자가 청자(독자)와 공유하

---

13) 신지연(1994: 157)은 '부연 설명'의 종류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예시에 의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앞에서 한 말들을 결론지어 말할 때, '그니까'가 쓰이기도 한다.

려는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세히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등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3)처럼 구어를 그대로 문자로 쓴 경우에도 접속 부사가 바르게 사용되면 오류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구어를 그대로 문자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학습 단계에 따라서 교육기관마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급에서 100개의 자료 중에서 '해요체'가 40개, '하라체'가 37개, '합쇼체'가 23개, 6급에서 '해요체'가 5개, '하라체'가 53개, '합쇼체'가 47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4급에서는 40%, 6급에서도 5%의 학습자가 구어를 그대로 문자로 옮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 그리고 문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오류는 6급에서도 심각한 오류로 나타났다.

(4) 중요한 것이 얼굴 부의가 아니고 표정이다. 무엇인가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좋은 표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급)

(5) 환경오염이 생기면 결국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자연을 포함한 삶 있는 모두다. 그 가운데 물론 인간도 있다. 가해자가 즉 피해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해결할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6급)

(4)와 (5)의 경우, 학습자는 '하라체'로 쓰면서도 접속 부사 부분에서 논리적 성격이 강한 '그러므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평소 구어에서 잘 접하는 '그러니까'를 사용한 것이다. 4급에서는 11번의 오류 중에서 이러한 오류가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4급에서는 '하라체'가 37%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러므로'를 사용할

만한 논리적인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6급에서는 17번의 오류 중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7번이나 나타났으며, 고급 학습자들 역시 구어와 문어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2.5. 그러면

'그러면'은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으나 오류율이 6급에서 100%로 나타났으며, 거의 바르게 사용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4급에서는 사용 빈도가 3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4급에서는 논리적으로 구성된 텍스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의 오류는 대부분 '그렇다면'과의 대치 오류로 나타났으며, (1), (2)와 같이 4급, 6급 학습자 모두 정확히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면'과 '그렇다면'은 모두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인데, '그렇다면'의 경우에는 '조건'의 의미 외에 '결과'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결론을 유도할 때 쓰인다. '그러면'은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 비해 '그렇다면'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습자들의 작문을 보면, '그렇다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러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과 대치할 수 있다. 만약 (1)과 (2)에서 '그러면'을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으로 대치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4급보다 6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수준이 올라갈수록 학습자들이 '그러면'과 '그렇다면'을 혼동하고 있다.

(1) 잡지를 보면, 남자친구를 만날때 순수하게 보이는 메이크업이라든지

회사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상황에 맞춘 메이크업이 나온다. 얼굴을 바꾸는 화장이 자기 이메지(Image)관리에 큰 역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잡지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4급)

(2) 이런 식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프리 라이더'(free rider)라고 말할 수 있고, '프리라이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책(예를 들어, 쓰레기를 줄이자 운동 또는 일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말자 운동 같은 것)은 유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좋을까?(6급)

4급에서는 '그렇다면'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 비해 6급에서는 번 사용되었다. '그러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을 사용한 경우도 볼 수 있다. (3)에서는 '한자를 알고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외국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을 '그렇게 되면'으로 대치하면 앞뒤가 잘 연결이 됨으로 '그러면'이 적합한 것이다.

(3) 모국어인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쓰려면 한자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자가 있으면 안정(安定)과 안정(安靜)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국제화 시대에서 특히 모국어를 깊이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외국어도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6급)

4.2.6. 그런데

'그런데'는 사용 빈도가 4급, 6급 모두 14이며,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오류율이 4급 57%, 6급 43%로 중급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오류 유형을 보면 4급에서 8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러나', '한편',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이었으

며, 6급에서는 6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러다가', '우선'과의 대치오류가 한 번씩이었다. '그런데'의 경우, 4급과 6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치 오류 유형은 없었고 각 급에서 오류빈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첨가 오류였다.

'그런데'는 주로 구어에서 많이 쓰이며, '대조'와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데 김미선(1996: 103)의 조사에 의하면 구어 자료에서는 '대조'의 의미보다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지연(1994: 146)은 구어에서의 '근데'의 기능으로 '대립의 의미', 상황 전개의 의미 기능으로 '화제의 전개'와 '화제의 전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중 '화제의 전환'의 경우, 화제마저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할 때에 '근데'가 화제 전환의 표지, 또는 화제를 이끌어내는 표지로서 빈번히 쓰이는데, 이러한 기능은 문어에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구어만의 담화 표지 기능이다. 4급 학습자의 오류 중에서 제일 많은 오류는 첨가 오류이다. 이것은 구어에서는 문맥에 상관없이 화제를 바꿀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작문에서도 '전환' 상황에서 무조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의 경우, '그런데'에 이어지는 문장과 '그런데'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1)이 구어라면 가능하지만 문어에서는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어휘적으로 반복되어 특별히 응집을 이루며 선행절과 후행절이 같은 상황과 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지연 1994: 144)

(1) 내가 대학생대 오랫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어떤 날에 손을 씻고 있던 때 거울을 보면 저기에 누나의 얼굴이 있었다. 너무 무서워져서 다음 날에 미장원어 발리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데** (→ ∅)나는 2년 전에 호주에서 어떤 인도네시아사람을 만났다.(4급)

6급에서도 첨가 오류가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첨가 오류 중에 위와 같은 오류는 볼 수 없었다. 6급에서는 (2)와 같이 '그런데'에 이어지는 문장이 대용어로 시작된 경우에 '그런데'가 필요 없는 데도 사용된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2)에서는 (1)과 달리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앞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지만 '그런'이라는 대용어가 있고 더구나 '자연의 파괴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데'가 필요 없는 것이다.

(2) 나는 보통 어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에게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따라다니기 마련이라도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 ∅) 그런 사회속에서 남아 있는 자연이 같은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6급)

4.2.7. 그리고

'그리고'는 4급에서 49번, 6급에서 55번이나 사용되었으며, 6급에서는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데 사용 빈도에 비해 오류율이 4급에서 16%, 6급에서 %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접속 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의 의미 기능은 '나열', '계기', '동시', '양보', '전환' 등 다양하다. '나열'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여 통사적으로 대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나열'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첨가'의 의미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후행문에 보조조사 '도'를 붙여 첨가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계기'는 선행문의 사건의 진행 후에 후행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의미관계이며, '동시'는 선행문의 행위와 후

행문의 행위가 시간적 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양보'는 기대되었던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한 원인이나 이유, 또는 논점을 양보하는 의미적 관계이며, '전환'은 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지닌 '그리고'는 구어에서도 문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의 의미 기능이 다양해서 그런지 '그리고'의 오류 유형도 다양해서 두드러진 특징은 찾아볼 수 없다. 4급에서는 6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렇지만', '어쨌든'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 나타났고, 6급에서는 9번의 오류 중에서 첨가 오류가 4번, '그래서'와의 대치 오류가 2번, '그때', '그런데', '또한'과의 대치 오류가 한 번씩이었다. 첨가 오류 경우에는 4급, 6급 모두 4번이나 나타났지만, '그리고'가 첨가된 상황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아래의 예문처럼 각 문장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텍스트 전체를 보면 '그리고'의 남용으로 인해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접속 부사가 연속으로 여러 차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중 몇 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그런데 암에 걸려서 그런지 잘 몰겠지만 혹시 살 수 있다면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부자가 되면 주말마다 미국든지 한국든지 해외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집며 자동차며 다 비싼 것을 사고싶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좋아하는 삼겹살 먹은 김에 삼겹살 집이라도 만들거 싶어요. 그게 아니면 될 수 있는 되로 일 안 하고 살고 싶어요.(4급)

각 학습 기관마다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겠지만 4급 학습자 경우에는 첨가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평가자에 따라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다르겠지만 첫 번째 '그리고'는 생략하여, 세 번째 '그리고'는 '또'로 대치

하면 텍스트 전체로 보았을 때 응집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고'의 오류 유형은 대치 오류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그리고'가 다른 접속 부사에 비해 광범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접속 부사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리고'를 사용하면 대부분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접속 부사를 사용한 오류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게다가'와 '또'이다. '게다가'는 바람직한 내용에 바람직한 내용을 덧붙일 때뿐만 아니라 (2)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에다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일 때에도 사용된다. 즉, '게다가'에는 '그리고'와 함께 첨가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다만, '게다가' 경우 (3)처럼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할 때에 한정된다.

'그리고'와 '또'에는 선행문과 후행문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나열'에 기능이 있는데, '또'의 경우에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같은 주제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4)에서는 앞에 제복의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가 사용되면 어색한 것이다. 이처럼 '그리고'와 '게다가', '그리고'와 '또'에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고급단계 학습자들도 잘 구별을 못하고 있다.

(2) 정부 지지률이 80% 이상으로 국민에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나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는 실감이 전히 없다. <u>게다가</u> 여즘 국회의원들 중에서 돈에 관한 스캔덜도 나오기 때문에 코이주미 정권에 대한 인기도 점점 줄고 있다.(6급)

(3)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세상은 앞으로도 개속되기 때문

이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할 거 같다. 따라서 그 정보 홍수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게다가(→ 그리고) 그 힘은 집에서 부모가 길러야 한다.(6급)

(4) 규칙이 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재미없는 같은 제복을 어떻게 자기제복으로 변화시켜서 개성을 살릴까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에서 생기는 창조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리고) 제복은 아주 경제적이다.(6급)

5. 결론

이상 일본어권 4급과 6급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사용양상과 오류양상에 대해 7종류의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급단계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등의 혼동이다. '그러니까'가 문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급단계 학습자들조차 논술문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많은 학습자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인과관계일 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와 '그래도', '그러나'와 '그런데'의 혼동이다. '그러나'와 '그래도'의 경우, '그러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를 사용한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가 완전한 대립에서 사용되는 데 비해 '그래도'는 부분적인 반론을 펼 때 사용된다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와 '그런데'의 경우, '그런데'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러나'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얼핏 볼 때 앞뒤의 내용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화제를 전개할 때는 '그런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러면'과 '그렇다면'의 혼동이다. 이 오류는 '그렇다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러면'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이나 '그렇게 되면'과 대치 가능한지의 여부를 잘 고려해서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그런데'의 첨가 오류이다. 이 오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데'가 구어에서 문맥에 상관없이 화제를 바꿀 때 사용되는데, 작문에서도 '전환'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데'에 이어지는 문장이 대용어로 시작된 경우에 '그런데'가 필요 없는 데도 사용된 것이다.

교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접속 부사가 왜 이상한지, 만약 그 접속 부사를 살리려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뒤의 내용을 살리려면 어떤 접속 부사가 적합한지를 잘 지도해야 한다.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신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글로 표현된 것을 제3자가 보면 설명이 불충분할 때가 많이 있다. 김봉순(2002: 243)의 실험에 의하면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모호할수록 표지의 기능이 커졌고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복잡할수록 표지 기능이 커졌다고 하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어휘, 어미, 조사 등 한국어능력이 모어 화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의 의미 구조가 모호한 경우가 매우 많다. 그래서 더욱 텍스트 구조의 표지 기능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가 독자에게는 더욱 쉽고 정확하게 텍스트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면서 전체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된다. 본고에서는 표지의 하나인 접속 부사를 다루었는데, 학

습자들이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하여 글로 정확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표지들에 대해, 그리고 모어 화자의 표지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학습자들이 보다 한국어답게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접속부사, 한국어 쓰기 교육, 사용과 오류 분석,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 본 논문은 2004. 10. 31. 투고되었으며, 11. 15. 심사가 시작되어 11.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 문헌

강승혜(2002), 「한국어 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161-190쪽.

강화진(2000), 『KFL 학습자의 작문 오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작문 지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석주 외(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괵셀 튀르쾨쥐(2004),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 구성 연구 -터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선(2001), 『접속부사의 텍스트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성(2001), 「과제 중심적 웹기반 한국어 쓰기 교육 - 'hanclass'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48쪽.

김봉순(2002), 『국어교육과 텍스트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선영(2003), 『현대 국어의 접속 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왕규 외(200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유정 외(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9-96쪽.

김정숙(1999),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5-214쪽.

김정애(2000),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피드백을 이용한 다시 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청자(2000), 「한국어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고급반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연구』제3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민자(2001), 『오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한국어 지도 연구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석주연 · 안경화(2003), 「한국어 학습자 표현 오류분석의 몇 가지 문제-정의,

확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9-214쪽.

신지연(1994), 『현대국어의 지시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싯티니 탐마차이(2001), 『한국어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 -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경화 · 양명희(2003), 「중간언어 의미 체계 정립을 위한 오류 분석의 실제」, 『어문연구』 31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03-425쪽.

여순민(2002),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전략 연구 - '문제-해결' 글쓰기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효진(2002), 『한국어 학습자 작문의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혜(2000), 「과정 중심의 한국어 쓰기 교육 -작문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149쪽.

이수민(2001),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교사 피드백이 학생 수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01),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박이정.

이희정(2003), 『한국어의 [그러-]형 담화표지 기능 연구 -일상대화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경(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 중심의 접근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uat, D. & Krashen, D.(1982), Language two, 牧野高吉訳, 第2言語の習得, 鷹書房弓プレス.

Ellis, R.(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金子朝子訳, 第二言語習得序説, 研究者出版

Lennon, P.(1991), "Error: Some Problems of Definition, Identification, and Distinction", *Applied Linguistics* 12.

■ Abstract

The Use and Error Aspects of Conjunctive Adverbs in the Writings of Korean Learning Japanese Native Users

Hiroyuki Sawada

Recently in the Korean Writing Education, there has been an emphasis more on the product-focused approach rather than the process-focused approach, and it has been also greatly discussed to deal with the writing in the level of discourse. In the process-focused writing activities, teachers need to teach learners to use established usage and markers of text-structure in order for them to get cohesion as well as logically completed conclusion when they write. Thus, teachers must know what native language they belong to and find out what features they have on their learning level, especially when they compose an essay. From this idea, this paper looks over the use and error aspects of the seven different conjunctive adverbs as markers of text-structure according to the Korean learning Japanese native users who are on the level of four and six. As a result, there are four problem areas summarized, which learners often carry into their advanced level.

First confusion area is the use in '*geureonikka*', '*geuraeseo*', and '*geureomeuro*'. '*Geureonikka*' has been hardly used in the written expression, but it can be used even on the advanced level of learners when they use it in an essa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errors appeared when learners use '*geureonikka*' instead of '*geuraeseo*' in the contents of cause and effect relation.

Another confusion occurs between '*geureona*' and '*geuraedo*', and '*geureona*'

and '*geureonde*'. In the case of '*geureona*' and '*geuraedo*', almost every error comes out of the use of '*geureona*' rather than '*geuraedo*'. '*Geureona*' is used for the complete opposition in contents while 'geuraedo' is used for the partial counter argument. In the case of '*geureona*' and '*geureonde*', it is often noticed to see the use of '*geureona*' instead of '*geureonde*'.

The other confusion comes from the use of '*geureomyeon*' and '*geureohdamyeon*'. This error appears when learners use '*geureomyeon*' instead of '*geureohdamyeon*'. When they use '*geureomye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geureomyeon*' is possibly replaced with '*geureohge hamyeon*' or '*geureohge doemyeon*'.

Last is the annexing error of '*geureonde*'. There are basically two errors on this problem. One occurs in the use of '*geureonde*' in an essay. '*Geureonde*' is normally used to change topics in any colloquial speeches regardless of any contexts. The problem is that this phenomenon appears in the conversion situation of the essay. The other is to use '*geureonde*'. It is used as a substitute word in the subsequent sentence even though it doesn't need to.

Teachers must have comprehensive ideas how to solve those problems, and understand why those confusions occur. They apply them to the real teaching level. Indeed they must teach not only what conjunctive adverbs are used in the subsequent sentence in order to make sense, but also how the subsequent sentence is saved depending on the conjunctive adverbs. Especially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weaker to use vocabulary, ending words, and postpositional words than native speakers, so they often show obscurity when they use them in the text-structure. That's why the conjunctive adverbs as markers of text-structure are significant for them to know.

[Key word] conjunctive adverb, Korean writing education, use and error aspects, Korean learning Japanese native users